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연령별사랑방(푸른꿈, 늘푸른, 젊은이)의 연합 찬양모임이 오늘 오후 1시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가 21일(금)에 있습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1일(금)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방모임은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 사랑방 바이블데이(성경퀴즈)가 23일(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장신대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교회 밖 현장실천’을 위해 20일(목) ~ 22일(토)까지 우리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김병우 · 정영옥(생일) 집사

강단을 꽃으로 : 조향민 집사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4 호

2024년 6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순례자의 길

멋쟁이학교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앙성장 동아리라는 학교 지정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목상집으로 매일 목상한 것을 동아리 시간에 나누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선정하여 함께 읽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방문하거나 기독교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는 등 외부로 나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마련되어 있는 천로역정 세미나에 참석하여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기로 했습니다.

[천로역정] 책을 미리 다 읽고, 지도로 공부도 하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참여한 일정이었습니다.

[천로역정]은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전도자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기독교 고전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출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앙인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보면 영향력이 큰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천로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나이가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좁은 문을 거쳐 십자가 언덕에서 이 짐을 내려놓게 되는 크리스천은 본격적인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나고 악마와 싸움까지 벌이며 힘든 고난의 길을 계속 이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소망과 함께 끝내 죽음의 강을 빠져나와 시온성에 이르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천로역정]의 이야기를 특별한 장소와 모형들, 동상들로 재현해 놓은 필그림 하우스의 순례길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 꾸려져 있었으며, 책에서 얻게 되는 감동을 뛰어 넘는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권면도 하고, 기도와 찬양도 하면서 순례길을 걷고, 뷰티풀

하우스에서 준비해주신 음료도 마시고, 뿔라의 땅에서 애찬도 하면서 지체들과 함께한다는 공동체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천로역정 세미나를 다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카페로도 운영하고 있는 뷰티풀 하우스로 다시 돌아가 함께 음료를 마시며 순례의 길을 걸어본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감명 깊은 곳이 어디였는지를 먼저 나누었는데, 벽에 걸린 그림 한 장, 나란히 놓인 두 의자. 이런 작은 것도 모두 신앙의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서로 놀랐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신앙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로역정 세미나에 참여한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한 후 처음부터 순례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침묵으로 진행되었던 세미나여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꼭꼭 눌러놔었는데, 나중에 다시 걸을 때는 참새들 마냥 재잘 되며 사진도 찍고 이런 저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천로역정]을 읽고,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끝까지 함께 했던 소망에게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예수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주시리라는 그리고 '잘 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주시리라는 이 소망을 꼭 간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순례자의 순례의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쓰러린 아픔 그리고 치열한 영적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그리스도와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린 십자가 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 그 곳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있어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YOU ARE A PILGLIM"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뺏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57장 391장 406장

기도 :

성경 : 히브리서 7장

제목 : 우월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1. 내용: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완전하다. (What)

<문단구분>

1~10절 <멜기세덱의 위대함>

11~25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리스도>

26~28절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2. 의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Why)

1)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2) 멜기세덱은 족보나 혈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3)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3. 적용: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How)

1)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자.

2)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3) 믿음의 십일조를 그리스도께 바치자

여름을 맞은 늘푸른사랑방 이야기

벌써 올 한해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숲이 울창한 것을 보니 여름이 된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날도 많이 더워져서 특히 우리 무림방 어르신분들은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을 맞은 늘푸른사랑방 지체들은 각자의 일상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늘푸른사랑방 지체들은 이제 기말이라 아마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다들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늘푸른사랑방이 약속한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신약 통독, 미라클 모닝, 방모임(찬양과 간식)입니다. 방모임 때는 간식 당번이 챙겨온 간식을 함께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120일간의 신약 통독 기간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특히 미라클 모닝은 매일 두 명 이상 인증하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는 각자 고난을 정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전부 쉽지 않은 목표였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충분히 바쁠 각자의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요즘 늘푸른사랑방 지체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상을 보내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사랑방 청년들을 만날 때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푸른사랑방 조이서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0 : 6-9
3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36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가복음 4 : 26~34
515

설교자
비움사랑방
정재훈 목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4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심은 씨는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서 추수를 하지만,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제는 막연한 씨가 아니라 구체적인 겨자씨로 소개 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 주변의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그들에 깃들일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거대하게 완성될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놀라운 증거입니다. 복음은 국경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혜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6월 교육주제는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2곳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을 이번에 다녀왔는데 바로 포천 신북면에 있는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산하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주간에 보호해드리고, 다양한 서비스로 안전하게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약속한 1시30분에 도착을 하니 많은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댁에 전달할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더운 오후에 땀이 뻘뻘 흘리시지만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이 인사하며 들어가니 사회복지사선생님과 많은 선생님이 꾸러기들을 보고 너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꾸러기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시면서 여기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같이 지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어르신들도 뵙고,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돌봄센터도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감사하게도 꾸러기가 배우러 갔지만 오히려 꾸러기들이 예쁘다고 미숫가루, 간식세트, 부채, 물총, 사탕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이 진짜 진짜 행복해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보리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초까지는 아직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높이의 보리수들은 익지 않아 덜익은 열매를 먹고 배탈이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주중에 여행을 다녀오고 금요일에 등교하니 빨갛게 익은 보리수들이 잘 다녀오기를 기다린 듯 맛아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보리수가 달렸는지 어린이들이 달렸는

지 모를 정도로 보리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어린이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지만 놀이기구 하나라도 더 타려고, 조금이라도 더 놀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의 아버지선생님과 한 분의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금요일에는 몸이 아파 함께 여행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등교하여 오랜만에 어린이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학기를 위해 어린이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무림리에도 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4학년과 다시 함께 지내는 멋쟁이생활은 더없이 활기찼습니다. 지난 주간의 학년별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목요일에는 여행보고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녀온 곳들의 풍경과 멋들어진 영상 만들세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활짝 웃는 멋쟁이들의 모습이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멋쟁이학교의 한 학기를 마무리짓는 종강발표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학생회 임원들을 비롯한 대본위원회가 매일매일 모여 토의하고, 월요일에는 멋쟁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도 열었습니다. 더구나 다들 무엇인가를 선보이고 싶은지, 발표신청을 받는 종이에선 공란이 없어지도록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스스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학기말 자율평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차분히 집중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고전과 전통에 대하여

불과 2주 전에 멋쟁이 6학년 학생들과 학년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학년은 3학년 때 했어야 하는 자전거여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중 하루를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가는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앞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생겼고, 낡은 MTB 자전거가 속도가 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사우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챙기기 위한 가방을 맨 상태로 라이딩을 했는데, 날이 더워지고 등에 땀이 차면서 체력이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강 뚝섬 공원까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그리고 힘든 자전거는 서로 바꾸어 타기도 하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강 변에 돛자리를 깔고, 맛있는 통닭과 시원한 음료를 시켜서 배고픔을 달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오전 실수를 교훈삼아서 가방을 자전거 짐받이에 여러 개 겹쳐서 자물쇠로 고정해서 오게 되었는데, 자물쇠 2개로 단단하게 고정될 줄 알았지만, 결국 가방이 흘러내려서 타이어와 마찰이 생겨나 가방 일부가 완전히 쓸려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가방을 희생하고 나서야, 다른 학생의 짐받이 고무줄을 이용했고, 고무줄로 고정하니 세 개의 가방을 겹쳐 쌓아도 너무나 튼튼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도착할 때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자전거 짐받이에는 항상 고무줄을 사용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전거를 위한 수많은 편의 장치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고정하기 위한 고무줄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래 전 방법이 여전히 정답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변화의 세월을 거치면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은 전통적이면서 고전적인 방법들은 삶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환영받고, 전통적인 것들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무시되는 시대에, 오래 된 자전거 고무줄이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은 여행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다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속단 말고 직접 해 보는 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여행은 과정에서 뜻밖의 배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올 여름 자전거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91장, 397장

성 경 : 시편 130편

말 씬 :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해외 선교사님들의 고령화>

- 1)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여 장기로 머물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2)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은퇴 후의 삶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독교교육의 본질회복 >

- 1) 교회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이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잘 지켜가서 교육개혁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 2) 사랑방을 비롯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기독교 교육의 본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애버랜드에 간 어린이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 2)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지체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점점 더 햇볕은 강해지고 무더워지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모초 원액도 마시고, 슬러쉬도 만들어 간식으로 내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밭은 하루가 다르게 열매들이 맺혀가고, 덩달아 잡초는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유기농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여름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